

海外情報

○ 미국, DAP 가격 실태 파악 곤란

미국 IMC의 대형 인산비료 프랜트의 생산중지 등을 계기로 급등하게된 미국 DAP 수출가격은 최근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업계측에 따르면 이 가격이 어느정도 수준까지 상승할지 그 실태 파악이 어렵다고 한다.

9월까지 재고가 소진됨으로써 최근 10월에 완전 바닥상태가 되고, 이 때문에 공급자(메이커)측도 가격 제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가령 공급 여력이 있다해도 예상외의 가격이 제시될 수도 있다.

공급자측도 재고품이 없음으로 명확한 가격을 제시할 수 없고, 거래 성립에 앞서 다른 가격 제시도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추계시즌 비료량의 움직임이 순조롭다는 견해가 있으며 미국내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한편, 러시아 제품 판매의 압력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여 이런 점에서도 미국 DAP는 재고 없음으로 인해 공급의 타이트한 감이 있다.

10월까지 소진 상태로 변해버린 이 와중에서 앞으로 어떠한 가격이 실제로 형성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FOB 단가 200달러 정도까지 개선되고, 오른다는 관측도 여전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 DAP 수급과 가격 정세속에서 수입업계측에서는 강한 불경기 속에서 수요자에 알맞는 가격으로 인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지적되고 있다.

외환시세가 약간 엔고 현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불경기로 인한 가격인상으로 더블펀치가 되어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목소리도 업계측에 퍼져 있다.

< 일본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0년 9월 5일 >

○ 태국 TCC, 년간 120만톤 환매 목표 설정

~~~~~

태국의 유력한 비료 메이커인 태국 센트럴 케미칼(TCC)사에서는 2천년의 국내용 비료 판매와 관련하여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시작하여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기후가 순조로울 경우 그 달성을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TCC는 일본의 日商岩井사와 센트럴硝子 그리고 태국 기업과의 합병 비료 메이커로서 화성비료의 년간 생산능력이 120만톤으로 동남아세아의 화성비료의 단일 메이커로서는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금년 2,000년의 판매 목표는 120만톤을 목표로 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전반기 1-6월의 실적은 대략 전년 정도인 55만톤(자사품 40만톤, 수입품 15만톤)이며 이번에는 후반(7-12월)을 맞이하여 남어지 65만톤을 달성하지 않으면 년간 120만톤 달성이 곤란한 것이다.

이 때문에 동사에서는 이 후반기의 65만톤 판매를 위해서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시작하였는데 동업인 타사와의 경쟁이 있다해도 궁극적으로 추진하여 년간 달성을 가능하다고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다. 단지 문제는 수요를 좌우하는 기후 사정에 따라 후반기 달성을 여부가 달려있다 하겠다.

금년 전반기의 기후는 태국 지역에서 다르게 나타나, 부분적으로 홍수가 난 지역은 비료의 소비량이 감소하여 그 회복까지 시간이 걸리는 지역도 있는 것 같다.

이러하기 때문에 년간 120만톤의 판매는 기후가 그 키를 쥐고 있게 되는 것이다.

후반기의 65만톤은 자사품 45만톤, 수입 20만톤으로 보고 있다. 자사품은 복합비료뿐이며, 수입품은 요소나 복비(러시아나 구주품)를 중심으로 황산암모늄, 인안, 가리의 판매에도 힘을 쓰고 있다. 복비을 중심으로 한 국내 비료 수요 동향과도 얹혀 있어 TCC의 2,000년 판매 동향은 두고 볼 일이다.

< 일본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0년 8월 23일 >

## ○ 요소 국제시황

상승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요소의 국제시황은 요즘 상당히 담보 상태인 잠시 휴식

########################################################################

을 갖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 중국산의 저가 공세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시황은 중국산이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인도네시아의 금수방침으로 향후 어떻게 전개되는가가 초점이 되었으나 중국산의 저가 공세로 하나의 굴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요소의 시황은 이 2-3개월간, 인도네시아, 중동, 구조련 등의 제품을 이 수급 조정을 이유로 강세를 지속, 저가에서 수십달러로 상승하여 FOB 단가 140달러대가 되고, 드디어는 동 150달러대를 넘나보는 수준에까지 가격 상승이 되었다.

그런데 중국산이 동남아 시장쪽으로 수출을 하게되어, 특히 베트남으로는 C&F 150달러 가량의 저가로 수만톤을 계획하였고, 최근에는 방글라데시에 5만톤의 입찰에도 저가의 오페 제시로 판매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며, 타 시장쪽으로도 마찬가지다.

한편 인도네시아가 공장 트러블로 인한 공급 감소와 국내 수요 증가의 대체로 인해 8월부터 요소의 수출을 금지, 그 결과 중국산의 등장과 인도네시아 제품의 금수로 수급면에서 상쇄되어 시황에서의 영향은 경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시황의 상승은 중국산의 저가 공세로 발목이 잡혀 최근에는 답보상황에서 하락쪽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 시황이 상승에서부터 하락으로 전위하느냐 아니면 중국산에 의해 좌우되는지가 일반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중국 요소의 대외 수출은 시황의 상승을 계기로 활발하게 시작, 동남아로는 20만톤이나 되는 오페가 제시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요소는 품질적으로도 문제가 되므로 실제로 걱정이 되고 있다.

< 일본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0년 8월 21일 >

## ○ 인도네시아, 요소 수출 금지 조치

인도네시아 정부가 8월초부터 가동 중지와 내수 우선권 등 때문에 요소의 수출을 금지하는 방침을 세워 그 실행을 하게 되는 것에 관해서 일본 관련업체에서는 『 장기화되면 국제 가격이나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 금후 그 동향을 충분히 주시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경계심을 강조하고 있다.

이 요소 수출 금지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으나 기 계약분으로

© 2013 by the author; licensee MDPI, Basel, Switzerland. This article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3.0/>).

L/C를 개설한 물량이 수출되고 이 물량도 불가항력의 선언 등으로 중지된다면, 매입자측은 수요의 커버를 할 수가 없으며 리스크를 받게 됨과 동시에 대체품의 필요성이 발생, 혼란하게 됨을 예상하게 된다.

인도네시아의 요소 수출 금지는 메이커의 뜻대로 4기의 플랜트중 4기가 생산 고장으로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며 그 이외에도 트러블이 발생하여 생산이 저하되고, 한편으로는 국내 수요는 증가하여 수급이 타이트한 실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수출금수”가 되었지만 실제로 어떤 영향이 미칠까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일본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0년 8월 14일 >

## ○ 암모니아 국제시황

암모니아의 국제시황이 다시 강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암모니아 가격인상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원료 가스의 가격 상승으로 메이커의 생산중지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암모니아 시황은 먼저 단계적인 가격 상승에 의한 가격인상 후, 내림세의 하강 경향이 되고, 흑해 선적이나 미국의 걸프 인도 가격이 하락하면서 아세아의 인도와 극동으로 보내는 것도 점차 하락하였다.

그러나 가격이 다시 하락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내림세가 멈추면서 다시 오름세로 변하고 있다.

한국의 입찰에서는 상향 낙찰, 또 최근의 대만 입찰에서도 일시적 고가 낙찰과 비교하여 거의 가격이 하락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업계측에서는 이러한 암모니아 시황의 변화에 관하여 미국이 추비 시즌에 접어들고 있고, 미국 메이커는 원료가스의 가격 인상으로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생산 휴업의 경우도 생겨 공급이 줄었으며, 시기적으로 수요가 확실한 것 등 배경에 있다고 한다.

이런 시황은 작은 수급 변동으로 인상과 하강을 반복하고 있으나, 지금부터 년말에 대한 상향의 속도으로 볼하든가, 미국의 가스 오를세에 의한 생산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1개월

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최근의 대만 입찰에서 낙찰한 가격은 C&F 210달러선의 반 강세(10월착)로, 전회의 동 218달러 기준(7월착)과 거의 변하지 않았다.

최근 한국 입찰에서는 가격이 인상된 후 C&F 179달러대로 하락하였고 그 후 동 189달러 기준(11월착)으로 상승하여 낙찰되었다.

< 일본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0년 9월 25일 >

## ○ 암모니아·요소, 국제 설비능력

1999년 기준에서 본 세계 암모니아·요소의 설비능력은 아세아 지역의 비중이 크고, 특히 요소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다.

업계측이 해외 기관의 자료 등을 근거로 정리한 능력을 살펴보면 아세아 지역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서구, 구쏘련, 북미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서구 등 선진제국이 저조한 반면, 아세아 등 신흥개발국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세계의 암모니아·요소의 설비능력의 구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세계의 99년도 암모니아 설비능력은 전체 1억5,271만톤, 이중 아세아는 6,159만톤(40%)을 점유하고 있고 이외 구쏘련 2,373만톤으로 16%, 북미 2,314만톤 15%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구 1,377만톤, 중동 998만톤, 중부유럽 921만톤, 중남미 821만톤 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요소는 전체 1억2,628만톤 설비능력중 아세아는 7,187만톤(57%)으로 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그외 북미 1,303만톤으로 10%, 중동 1,221만톤 10%, 구쏘련 1,101만톤 9% 등이고 이외 서구, 중구, 중남미로 계속된다.

이와 같이 아세아는 상당부분의 설비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것은 실 생산은 수급이나 시황의 변동에 좌우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실 생산률은 생산설비보다 낫다.

< 일본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0년 9월 26일 >

○ 중국, 동남아로 요소 50만톤 수출

www.ijerph.org

관련업계측이 언급한 바에 의하면 중국 요소의 수출 계약 물량은 동남아 시장을 주체로 하여 50만톤 정도가 되었고 더욱더 증가되어 가는 상황에 있다고 한다.

이 수출에 관해서는 이달 중순의 TFI 샌프란시스코 총회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하나의 걱정거리인 품질 문제도 특히 염려 할 바가 뜯된다고 논의가 되었다고 한다.

중국의 요소 수출은 국제시황의 상승이 계기가 되어 더욱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시황의 가격 인상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요소의 국제가격은 약화되어 하강으로 향하였다. 이런 사이에 중국 요소는 베트남으로 향하는 것이나, 방글라데시의 입찰에서도 낙찰을 받아 기타의 수출을 포함하면 대략 50만톤의 계약 물량을 달성하였지만 TFI 총회에서도 화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 결정에서 품질은 특히 걱정할 것은 없다고 하며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에 있어서 바이어측의 평가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결정되어 증가된다면 국제시황에의 충격은 피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요소 수출이 이렇게 진전되고,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조치의 해제도 있어 수급면에서 시장 하락에 박차를 가할 수도 없고 그 향방에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 일본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0년 9월 26일 >

## ○ 요소·암모니아·황산암모늄의 국제시황

업계측이 보고 있는 최근의 국제시황 동향은 황산암모늄의 경우 미국산은 중남미로의 수요 증가가 크며 아세아 지역에서는 요소시황이 가격 하락이 없이 견조한 시황을 보이고 있고, 요소는 여름철의 상승으로 중국산의 수입 등으로 하락은 하였으나 세계 전체로서는 중남미의 수요 호조와 구주(이태리 등)의 대규모 매입 동향 때문에 현재의 완화된 상태가 오래 지속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암모니아는 하절기의 완화 후 미국의 추비 계절이나 아세아 지역의 수입 등으로 허락된 상태이다.

### < 황사암모늄 >

서구, 북미의 시황 동향에 의하면 서구품은 변하지 않았고, 미국품은 근간에 약간 상승세

\$\$\$\$\$\$\$\$\$\$\$\$\$\$\$\$\$\$\$\$\$\$\$\$\$\$\$\$\$\$\$\$\$\$\$\$\$\$\$\$\$\$\$\$\$\$\$\$\$\$\$\$\$\$\$\$\$\$\$\$\$\$\$\$\$\$\$\$\$\$\$\$\$\$\$\$\$\$\$\$\$\$\$\$\$\$\$\$\$\$\$\$\$\$\$\$\$\$\$\$\$\$\$\$\$\$\$\$\$\$\$\$\$\$\$\$

를 나타내고 있다. 황산암모늄은 요소, 암모니아와 같이 가격 변동은 없으나 미국산의 가격 상승은 중남미, 특히 브라질에서의 수입 수요 증가(금년 전반기의 수입 실적은 전년 동기에 비하여 약 30% 증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된다.

해당 지역의 수입 수요는 타 비종의 비료도 여전히 많으며 당분간 강세로 이전되지 않을 모양이다.

한편 아세아 지역에서는 이번 전기의 작물 조달과 내년도 것과의 거래가 교차되고 있으나 요소시황의 커다란 가격 붕괴가 없다는 것, 또한 지역내 수요 증가 등에 의해 최근에 와서 약간 상승하고 있다.

#### < 요소 >

수입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7~8월에는 2년만에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8월부터의 인도네시아에 의한 금수조치는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였으나 중국에서의 돌연한 수출에 의해서 9월부터 그 이후의 시황이 약세가 되어 있다.

9월 중순 인도네시아는 앞서의 금수조치를 해제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주요 구매자인 베트남은 기 계약의 중국이 관여하여 그 계약의 이행상황에 주목하고 있으며 신규 매입을 절제하고 있다.

그러나 요소시황이 여름철에 비하여 톤당 15달러 정도가 하락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실속에도 한계(FOB 110달러 백정도)에 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공급의 지속성에 의문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세계 전체로서는 브라질을 비롯하여 중남미의 수요 호조와 근간 실시되는 터키(30만톤), 이태리(80만톤) 등의 매입으로 공급자측은 현재 가격하락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 암모니아 >

여름철에 하락된 암모니아의 시황은 미국의 인안 생산증가, 아세아 지역에서의 활발한 수입 등을 계기로 거의 하락세를 멈추고 있는 것 같다.

더욱 주요한 수출원의 FOB 가격이 100달러 이상으로 9개월 이상 추이되고 있는 것은 1997년 이후의 일이다.

© 2013 Pearson Education, Inc. All Rights Reserved. May not be copied, scanned, or duplicated, in whole or in part.

< 주 > 이 시황은 9월 중순 현재 일괄한 것이며 9월말의 시점에서는 품목·지역 등에 의해 상황이 변할 수 있다.

< 일본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0년 10월 3일 >

○ 캐나다 가그룹, 미국 유노칼의 질소부문을 매입

캐나다의 가리 메이커인 가그룹(본사 칼가리)은 요즘 미국 유노칼의 질소부문을 3억 2,100만달러로 매수하는 계약에 조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기본합의, 법적심사, 수속등을 거쳐 이달에는 정식으로 결정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가그룹은 유노칼의 질소부문을 매수하므로써 세계적 비료메이커가 되었고, 북미 비료 메이커인 리스트라의 독점화가 또 진행되고 있다.

이 그룹이 매수한 유노칼의 질소부문은 알라스카의 게나이에 있는 암모니아 생산능력 60만톤과 요소 100만톤 설비능력, 워싱턴주의 게내우익크의 암모니아 생산능력 60만톤과 요소 100만톤, 황산암모늄 37만톤, 초산암모늄 27만톤, 질소액비 50만톤 설비, 캘리포니아주 사크라멘트의 질소액 20만톤 설비, 동 플랜트의 약간의 설비, 이외 창고·물류 시설등이다.

가그룹은 이 질소를 주체로한 설비를 매수, 그 결과 기존의 가리, 인산, 유황등을 포함한 비료의 제조·판매에서 세계적인 메이커가 될 것이다.

한편 유노칼은 알라스카를 주 축으로 한 농업자재, 비료부문을 매각하므로써 석유, 가스, LPG 등 에너지 부문의 사업발전에 집약, 효율을 올리는 일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미국 유노칼의 질소등 비료부문의 양도에는 수년전부터 에너지 부문에의 특별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매매 교섭등의 조건이 맞지 않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유노칼과 가그룹의 이해와 생각이 일치하여 기본합의를 거쳐서 법적인 수속을 걸쳐서 정식 계약 조인을 하게된 것이다.

< 일본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0년 10월 4일 >